

왕의 비밀, 종들의 손에 ✨

I. 서론

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은 “그의 종들에게 보여 주시려고”라는 목적어(계 1:1)를 통해 이 책의 수신자와 무대를 동시에 열어 줍니다. ‘누구에게 주셨는가?’가 분명해질수록 ‘무엇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?’가 선명해집니다. “KJB 세대주의”를 비판적으로 재검토하여, 과장과 누락을 교정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더 단단한 교리적 골격을 세우겠습니다.

II. 본문(KJB + 흄정역 마제스티 에디션)

- **KJB:** “*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, which God gave unto him, to shew unto his servants things which must**shortly come to pass; and he sent and signified** it by his angel unto his servant John.*”(Rev 1:1)
- 흄정역(요지): “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.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께 주셨고, 그분께서 자기 천사를 보내어 자기 종 요한에게 알리셨느니라.”(계 1:1)

핵심 표현: **to shew**(보이시려), **his servants**(그의 종들), **must**(신적 필연), **shortly**(임박·개시 후 신속), **signified**(표징들로 드러내심).

III. 문맥 배경

- 전달 사슬: 아버지 → 아들 → 천사 → 요한 → 종들(계 1:1)
 - 복수의 수신층: (1) 1세기 아시아의 일곱 교회(계 1:4, 11; 2–3장) (2) 정경을 통해 모든 교회들(계 1:3; 22:16) (3) 예언의 직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들(계 7; 11–14장; 20:4)
 - 시간 신학: “**shortly**”(1:1; 22:6), “**at hand**”(1:3), “**quickly**”(22:7, 12, 20). 임박성(언제라도 시작)과 신속성(시작되면 신속 진행)이 함께 강조됩니다.
-

IV. 원어 분석(헬라어/TR)

- ἀποκάλυψις(apokalypsis, 계시): 가리개를 거두다. 숨김→드러냄.
- δεῖξαι(deixai, 보여 주다): 실물/표징을 제시하여 이해케 함(‘show’).

- δοῦλοι(douloi, 종들): 주인의 소유된 자(bondservants). 신분(소유)과 충성(복종)을 함께 포함.
 - δεῖ(dei, 반드시): 신적 필연.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에 따른 필수 진행(예외와 변수 없음).
 - ἐν τάχει(en tachei, 속히): 가까운 때/시작 시 신속 전개의 이중 뉘앙스.
 - ἐσήμανεν(esēmanen, ‘signified’): 표징(sign)으로 알리다. 상징이 실제를 부정하지 않고 실재를 가리키는 표지임을 전제.
-

V. 성경 문법 분석

1. ‘그의 종들’의 범주

- 최소범위: 요한 자신(단수, 1:1).
- 1차범위: 아시아의 일곱 교회 성도들(2–3장).
- 확대범위: 정경을 통해 모든 교회 시대 성도들(1:3; 22:16).
- 예언 당사자: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들—특히 이마에 인을 받을 144,000 “우리 하나님의 종들”(7:3–8)은 ‘종들’의 부분집합.

2. ‘교회’ 용어의 소거와 재등장

- 4:1 이후 22:15까지 “church(es)”가 사라졌다가 22:16에서 재등장. 이는 무대 전환(교회 시대 목회 서신 → 환난/이스라엘 중심 예언)과 서론-결론의 교회적 포괄(inclusio)을 함께 보여 줍니다.

3. 상징 해석의 규범

- “signified”는 상징적 전달을 뜻하나, 해석의 토대는 성경 자체(단 2; 겸; 속; 출)입니다. 성경은 성경으로(고전 2:13). 상징은 실재의 희석이 아니라 실재의 압축 문법입니다.

4. 가드레일

- 교회–이스라엘 구분(롬 11:25–29; 계 3:10; 7장): 대체신학 배제.
 - 구원의 근거 불변: 언제나 어린양의 피(계 7:14; 12:11). 환난의 인내/짐승의 표 거부는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열매(계 14:12; 20:4).
 - 목회적 유익: 4–19장은 직접 적용이 아니라 예언 지식·거룩의 교훈(계 1:3; 22:7, 10).
-

VI. 본문의 문맥적 해석(비판적 검토 및 보강)

1. 수신의 1차성: “그의 종들”은 배타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신약의 성도 전체를 포괄하는 고유 용어입니다(계 1:1, 1:3; 22:3–6). 144,000은 그 중 특수 표본(7:3–8)으로, ‘종들’의 전체 정의가 아닙니다.
2. 교회 용어의 소거 해석: 4–19장에 “church(es)”가 사라졌다고 해서 교회의 존재 자체가 무대 밖이라는 뜻은 아닙니다. 다만 초점이 이스라엘/땅의 심판으로 이동했을 뿐, 결론(22:16)에서 다시 교회들에게 말하시는 구조가 이를 균형 잡아 줍니다.
3. 요한의 사역 위치: 갈 2:9의 분할(할례/이방)은 사도권한의 사역적 주력을 말하지, 서신/계시의 독자 제한을 뜻하지 않습니다. 요한의 서신과 계시는 연합 교회들(유대·이방) 전체를 아우릅니다.

4. 임박성의 균형: “shortly/at hand/quickly”는 이미-아직(already but not yet)의 문법 속에 읽어야 합니다(벧후 3:8의 시간 관점과 조화). 자연은 느림(지체)가 아니라 오래 참으심(롬 2:4)입니다.
 5. 상징-실재의 관계: 상징은 해석 키를 요구합니다. 계 1:20이 금등잔대=교회, 별=사자(메신저)로 해석 키를 주듯, 본문 내부에 해석 키가 빈번히 배치됩니다. 그러므로 임의적 영해나 과도한 신비화를 경계합니다.
-

VII. 그리스도론적 해석

- 계시의 주체이자 내용: “예수 그리스도의 계시”—아들이 말씀하시는 대언자 직분(히 1:2)과 제사장-왕으로서의 영광(계 1:12–16; 5:5–10; 19:16)이 한 권에 수렴됩니다.
 - 종들 vs 아들: “종”과 “아들”의 대비(히 3:5–6). 아들의 집에 속한 자들이 종으로서 복종합니다.
 - 언약 성취: 유다의 사자·다윗의 뿌리(계 5:5)는 아브라함–다윗 언약의 성취자이며,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(20–22장)은 어린양의 혼인(19:7–9)으로 절정에 이릅니다.
-

VIII. 신약의 인용과 구약의 배경 비교

- 아모스 3:7: “주 여호와께서는... 그의 종 대언자들에게 그의 비밀을 보이시느니라.” → 계 1:1의 계시-보여 줌의 원리와 직결.
 - 다니엘 2:28–30: “마지막 날들에 있을 일을 보이심” → 왕국 전개와 짐승 권세(단 7; 계 13)의 연결.
 - 다니엘 12:4, 9 vs 계 22:10: “봉하라” ↔ “봉하지 말라”—감춤→드러냄 전환.
-

IX. 모형 vs. 실제

- 모형: 모세(“충성된 종”, 민 12:7), 구약의 주님의 종들(대언자들), 남은 자(렘 23; 속 3–4).
 - 실제: 참 종이신 아들(사 52–53의 “나의 의로운 종”)과 그분 안에서 종 된 교회(롬 1:1; 계 1:1).
 - 표징: 출애굽 심판(재앙) → 큰 환난의 재앙(계 6–19)의 전형.
-

X. 구속사적 위치

- 이미-아직(already but not yet): 십자가·부활로 왕권의 합법적 취득(계 5장), 그러나 통치의 전면적 집행은 재림–왕국–영원으로 전개.
- 교회는 읽고 듣고 지킴(1:3), 이스라엘/세상은 심판 무대의 중심(6–19장), 어린양의 신부로서 혼인에 참여(19:7–9).

XI. 성경 간 연결

- 계 1:1 ↔ 단 2, 7; 암 3:7; 사 52–53; 속 12–14; 마 24–25; 살전 4; 고전 15; 계 5; 7; 13–14; 19–22
 - 해석 키: 같은 상징은 성경 내부에서 먼저 찾는다(계 1:20; 17:7–18의 내재적 해석).
-

XII. 참고구절(예표 → 성취 → 구속사·적용)

1. 암 3:7 → 2. 단 2:28–30 → 3. 마 24:15 → 4. 계 1:3 → 5. 계 7:3–8 → 6. 계 14:12 → 7. 계 22:16
-

XIII. 믿음의 예(역사적 사례)

1. 요한 낙스(**John Knox, 1513–1572**): 스코틀랜드 개혁의 격랑 속에서 주의 주권과 임박한 심판을 선포하며 군왕과 민중 앞에 담대히 섰습니다(주저, *History of the Reformation in Scotland*). “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종”의 전형을 보여 줍니다.
2. 조지 뮐러(**George Müller, 1805–1898**): 어린양의 신실하심을 신뢰하여 고아 사역 전반을 기도와 말씀으로만 유지(*Narrative of the Lord's Dealings with George Müller*). “읽고 듣고 지키는” 신자의 열매가 구제와 순종으로 나타난 보기.
3. 스펠진(**Charles H. Spurgeon, 1834–1892**): 설교 전반에서 계 1:3의 첫 복을 강조하며 말씀 순종의 복을 촉구(예: MTP 설교집). 교회가 계시록을 두려움이 아닌 복으로 읽어야 함을 일깨움.
4. 모라비안 형제단(**Count Zinzendorf, 1700–1760**): “어린양의 고난의 보상은 그분의 것”이라는 표어 아래 열방 선교에 헌신. 어린양 중심의 종됨이 순종과 파송으로 분출된 사례.

※ 위 인용들은 해당 저술·전기에서 널리 알려진 기록들입니다(*Foxe, Acts and Monuments* 등). 핵심은 ‘종들’의 정체성은 실제 역사 속 순종으로 증명되었다는 점입니다.

XIV. 결론

- 수신자 결론: 계시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아들의 계시로서, 천사를 거쳐 요한에게, 그리고 모든 시대의 ‘그의 종들’—1차로 일곱 교회, 정경을 통해 모든 교회, 예언의 직접 당사자인 이스라엘과 환난 성도—에게 전달되었습니다.
- 해석 결론: 2–3장은 직접 규범(목회적 권면), 4–19장은 교회가 읽고 듣고 지킬 예언(직접 적용 금지)이며, 무대의 중심은 이스라엘/환난이되 교회는 결론에서 다시 소환됩니다(22:16).

- 그리스도 결론: 이 모든 것은 유다의 사자, 어린양,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기 위함입니다. 그러므로 교회는 ‘종’으로서 이 책을 읽고, 듣고, 지키며(계 1:3), 대체 없이, 혼합 없이, 그리스도 중심으로 임박한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. 왕의 비밀은 오늘도 종들의 손에 있습니다. †
-

부록: 핵심 논점 한눈정리(교정 포인트)

- ‘종들’ = 교회 시대 성도 전체(요한 포함) + 예언 당사자들의 부분집합(**144,000 등**).
- 교회 용어 소거는 무대 전환의 신학적 신호이지 교회의 부재 선언이 아님(22:16이 포괄).
- 임박성은 이미-아직(already but not yet) 구조로 이해(지연=오래 참으심).
- 상징은 성경 내부 해석키로 푼다—자기충족적 상징 해석 금지.
- 구원의 근거는 언제나 어린양의 피—환난의 인내는 열매.